



오전 8시 7분께 | 사저
군통수권 이양 보고



오전 9시 30분 | 사저
어린이·주민들과 인사



오전 10시 10분 | 현충원 참배
첫 공식 외부 일정



오전 11시 10분 | 국회의사당 중앙홀
제21대 대통령 취임 선서



낮 12시 10분 | 국회 사랑재
우원식 국회의장·여야 대표 회동



오후 2시 10분 | 용산 대통령실 출근
주요 내각 인사 발표

이재명, 여야 대표와 회동 “양보·타협”...협치 시동

임기 첫날 분주한 행보

“정치가 국민 어려움 해소해야”
“모두가 동의하는 정책 추진”
첫 공식 외부일정 현충원 참배
국회 청소노동자에 감사인사도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첫날부터 여야 대표들과 회동을 갖는 등 협치에 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4일 국회 사랑재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와 오찬을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치가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 저부터 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도, (국민의힘) 김용태 대표도 제가 잘 모시도록 하겠다. 자주 법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모든 것을 혼자 다 100% 취할 수는 없다.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타협할 것은 타협해 가급적 모두가 동의하는 정책으로 국민이 나은 삶을 꾸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적대와 전쟁과 같은 정치가 아닌, 서로 대화하고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경쟁을 하는 그런 정치가 되기를 바란다”며 “자주 연락을 드리겠다. 시간을 내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따로 당사라 찾아뵈어도 했지만, 경호 문제 등에서 어렵다고 하더라”라며 “국회의장께서 자리를 마련해줘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당선 후 첫 공식 외부 일정으로 현충원을 참배했다.

이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오전 10시 10분께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 도착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윤여준 총괄선거대책위원장 등 민주당 인사들도 동행했다. 이 대통령은 참배를 마친 뒤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취임 선서 행사를 가졌다. 간소하게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한 5부 요인과 정당 대표, 국회의원, 국무위원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취임 선서는 보궐선거에 따라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 국정 안정의 시급성을 고려해 예포 발사나 군악대 퍼레이드 등의 별도 행사 없이 약속으로 간소하게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취임 선서에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 이주호 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과 악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빨강과 파랑이 배색된 넥타이를 매고 취임 선서를 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대선 TV 토론에서도 적색·청색 줄무늬 넥타이를 매고 참여했다. 푸른색은 민주당, 붉은색은 국민의힘의 상징색이라는 점에서 통합 의지를 부각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이 대통령은 취임 선서 후에는 국회 청소 노동자와 의회 방호 직원을 별도로 만나 악수하고 사진을 찍으며 감사 인사를

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12·3 내란사태 당시 계엄군의 국회 침탈을 최전선에서 막아냈던 분들이 방호직원이었으며, 혼란스럽던 민의의 전당을 깨끗이 정리해 주신 분들이 국회 청소 노동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계신 국회 노동자의 헌신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지난 2023년 이 대통령의 단식 기간 내내 여러 도움을 줬던 당 대표실 담당 미화원 최성자 님도 만났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인 결정안을 의결하면서 이날 오전 6시 21분 임기가 시작됐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사진=대통령실통신·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김 지사 “전남, 진짜 대한민국 동반자”

이재명 취임 축하메시지 “데이터센터 공약 등 협력”

김영록(사진) 전라남도지사는 4일 “압도적 지지와 신뢰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드린다”며 “전남도는 ‘진짜 대한민국’의 여정에 든든한 동반자가 돼 빛나는 미래변영의 새 시대를 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대통령 취임 축하메시지를 통해 “성남 공장 소년관에서 인권변호사,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당 대표를 거치면서 굵은 세상을 바르게 펴기 위해 평생을 바친 삶 자체가 인간 승리”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는 국민 모두에게 살아있는 희



망이자 용기 그 자체”라며 “이러한 삶의 여정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의 철학인 국민이 진짜 주인 되는 국민주권정부, 모든 경제주체가 성장의 과실을 함께 누리는 진짜 성장의 시대가 활짝 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굳게 약속한 전남도 7대 지역공약에는 전남도민의 오랜 꿈과 염원이 고스란히 담겼다”며 “신재생에너지 허브 전남 조성, 미래첨단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여수석유화학산업대 전환 등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대통령 공약 ‘대법관 증원법’ 법사소위 통과

輿 단독 의결... 30명으로 1년에 4명씩 4년간 증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위에는 민주당 김용민·장경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두 건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상정돼 병합심사됐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대법관 정원을 30명으로, 장 의원의 개정안은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소위는 김 의원의 개정안대로 대법관을 해마다 4명씩 4년간 16명 늘리되, 법률이

공포된 뒤 1년간 시행을 유예하는 부칙을 달아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1년에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이 약 4만 건에 이르고 대법관 한 명당 처리해야 하는 사건이 3000건이 넘는다”며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표결에 앞서 퇴장하며 “일방적 의회 독재”라며 “대법관 증원의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관 증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발표한 공약이다.

당시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광주·전남 ‘최고 투표율·압도적 지지’... 정권교체 주춧돌

지역 정치권, 유세 등 전방위 활동 박지원·정준호 등 지역의원 맹활약 강 시장·김 지사 등 단체장도 큰 힘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9.42%의 득표율로 당선된 가운데,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광주·전남이 높은 투표율과 압도적 지지율로 정권 교체의 주춧돌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4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 광주는 83.9%, 전남은 83.6%의 투표율로 전국 1·2위를 기록했다. 이 후보는 전남에서 85.87%, 광주에서 84.77%의 득표율을 얻어 전국 최고 득표율 지역이 됐다.

이 같은 결과에는 지역 정치인들의 전방위적인 분투가 뒷받침됐다.

박지원 민주당 골목골목선대위원장(해남·완도·진도)은 조기 대선 국면 동안 1만 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하며 50회가 넘는 유세를 소화했다. “여러분 제가 그 유명한 박지원입니다!”라는 익숙한 인사로 시작한 그의 마라톤 유세는 실제 조직과 투표율을 이끌어낸 현장 전략의 핵심이 됐다.

박 의원은 “높은 사전투표율은 내란을 기도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지역민의 분노가 투표로 표출된 것”이라며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데 광주·전남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전남에서는 △완도 89.90% △합평 89.17% △신안 88.73% △해남 88.53% △담양 88.08% △고흥 87.78% △구례 87.72% △진도 87.60% 순으로 높은 득표율이 기록됐다.

중앙선대위에서도 지역 출신 인사들이 핵심 역할을 맡았다.



박지원 민주당 골목골목선대위원장(해남·완도·진도)이 지난 2일 전남 여수 마지막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박지원 의원실 블로그

광주 출신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총괄선대위원장단에 이름을 올려 주목받았고 신정훈(나주·화순) 의원은 전국 조직을 조율하는 조직본부장을 맡아 유기적인 선대 체계를 구축했다. 민형배 의원은 K-이니셔티브 위원장으로 정책 브레인 역할을 맡았다.

특히 정준호(광주 북구갑)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 부단장은 최근 ‘자손군(맛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손군가락 군대)’이라는 맛글 조직팀을 만들어 여론 조직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보수 단체 리박스쿨을 집중 조사,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연관성을 제시하며 막판 대선을 흔들었다. 그는 “극우단체의 맛글 공작은 대선을 망치려는 명백한 선거 부정이자 사이며 내란”이라며 “윤석열 후보의 공약인 늘봄교실에 리박스쿨 출신강사를 투입한 것은 국기문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후 교육부는 전수조사에 착수, 경찰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역의원들도 전략과 현장을 넘나들며

힘을 보냈다. 완도 출신 임선숙 전 최고위원은 배우자실장을 맡아 김혜경 여사와 동행했고 안도걸(광주 동남읍), 조계원(여수읍), 김원이(목포), 조인철(광주 서구갑),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 등도 각 직능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과 주철현 전남도당위원장은 조직 정비에 힘을 보탰다.

광주·전남 각 지자체의 유권자 독려 캠페인도 눈에 띄었다.

광주시는 시청·교육청·5개 자치구가 함께 ‘투표가 힘입니다’ 캠페인을 벌이며 투표율 92.5%라는 도전적 목표를 제시했다. 또 개표 당일에는 광주시청과 전남도청에 시민 참관 공간도 운영됐다.

민주당 전남선대위 관계자는 “이번 당선은 중앙당뿐 아니라 지역 선대위, 지방의원, 자원봉사자, 지지자 모두가 유기적으로 움직인 결과”라며 “내란세력 척결이라는 시대정신을 지역이 앞장서 실현해낸 역사적 성취”라고 강조했다.

오지현·정성현 기자